

2020학년도 1학기

독서모임: 책 나눔 인생 나눔

온라인 운영 안내 자료



계당교양교육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1. 운영 개요

✓ 독서모임 “책 나눔 인생 나눔” 이란?

- 교내 다양한 구성원과 독서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 다양한 학과 및 학년의 구성원들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통해 종합적 의사소통 향상 및 비판적 독서 능력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활동 기간

- 1학기 중(방학기간 포함) 5회 이상 자유로운 독서모임 진행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에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

✓ 운영 내용

- 상명핵심역량도서 및 상명추천도서를 포함한 3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자유로운 독서토론 활동
- 모임은 카카오톡,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
- 모임 진행 후 활동보고서 구글 클래스룸 제출



1. 운영 개요

✓ 진행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신청 기간	4월 1일(수) ~ 4월 24일(금) 17:00	[샘물 포털] → [비교과프로그램] 접속 후 신청 - 개인 신청: 독서모임 개인 참가는 신청 및 접수 후, 수업 시간표를 고려하여 센터에서 팀 구성(개별 연락 예정) - 팀 신청: 5인 내외의 팀 구성 후 신청 및 접수 진행
온라인 OT	1차: 4월 14일(화) 15:00 2차: 4월 28일(화) 15:00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독서모임 OT 진행 - 팀별 활동 지원 방식은 온라인 OT 진행 시 논의(예정)
활동 기간	1학기 중(방학기간 포함)	- 상명핵심역량도서 및 상명추천도서 목록을 포함한 3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자유로운 독서토론 활동 진행 - 매 모임마다 활동보고서 작성 후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 - 가능하다면, 서평(book review) 쓰기 활동까지 확대 진행(예정)
온라인 평가회	6월 2일(화)(예정)	- 팀별 활동 보고 및 프로그램 환류 방안 논의 /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2. 온라인 독서모임 활동 방식

1) 읽을 책 및 토의 주제 선정하기

○ 읽을 책 선정

- 상명핵심역량도서 및 상명추천도서를 포함한 3권 이상의 책
- 단, 위 사항은 가이드라인으로 두며 팀원들과의 논의 하에 자유로운 책 선정 가능

“독서모임 진행 시 읽을 책에 대해서 본 센터에서는 ‘상명핵심역량도서 및 상명추천도서를 포함한 3권 이상의 책’으로 읽을 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은 가이드라인이지 꼭 지켜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읽고 싶은 책, 독서 방법, 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논의 하에 자유로운 책 선정이 가능합니다. 팀에 따라 한 권의 책을 한 학기 동안 천천히 음미하듯 읽는 팀들도 있고, 5~6권씩 읽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참고] 상명핵심역량도서 목록

상명핵심역량도서 100선 목록

번호	분류	도 서 명	저 자	읽었어요?
1	전면지식 탐구 역량	공부하는 힘	황농문	√
2		교양, 모든 것의 시작	서경식 · 노마 필드 · 카토 슈이치	
3		글쓰기의 지도	한수영	
4		논리와 비판적 사고[쇄신판]	김광수	
5		논문작성법	박창원 · 김성원 · 정연경	
6		대학 4년 똑똑하게 공부하라	오정숙	
7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전략 포트폴리오	조용개 외	
8		독서의 즐거움	수전 와이즈 바우어	
9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10		마인드맵 북	토니 부잔 · 배리 부잔	
11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희정	
12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박은진 · 김희정	
13		비판적 사고: 실용적 입문[3판]	앤 톰슨	
14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	정병기	
15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모티머 J. 애들러 · 찰스 반 도렌	
16		소통을 위한 글쓰기	박진숙	
17		책을 읽는 방법	히라노 게이치로	
18		최고의 공부	켄 베인	
19		하버드 교양 강의	스티븐 핑커 외	
20		학술논문작성법[3판]	웨인 부스 · 그레고리 컬럼 · 조제프 윌리엄스	
21	다양성 확대 역량	공감의 시대	제러미 리프킨	
22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이야기	SBS 스페셜 제작팀	
23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피터 우드	
24		르몽드 세계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이슈와 쟁점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5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26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7		민주주의의 무기, 톨레랑스	필리프 사시에	
28		살아있는 다문화교육 이야기	손소연 · 이륜	
29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리처드 니스벳	
30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31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바네사 베어드	
32		세계화의 뒷	한스 피터 마르틴 · 하랄트 슈만	
33		영화로 읽는 문화다양성의 코드	김한식	

번호	분류	도 서 명	저 자	읽었어요?
34	다양성 확대 역량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박경태	
35		인종차별, 아만의 색깔들	타하르 벤 젤룬	
36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37		처음 만나는 이슬람: 오해와 편견에 갇힌 16억 문명의 진실	하룬 시디퀴	
38		컬처 코드: 세상의 모든 인간과 비즈니스를 여는 열쇠	클로테르 라파이유	
39		푸른 눈, 갈색 눈: 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야기	윌리엄 피터스	
40		프랑스의 문화전쟁: 공화국과 이슬람	박단	
41	어려운 것 도전 역량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김훈민 · 박정호	
42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2	박정호	
43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44		과학혁명의 구조	토머스 S. 쿤	
45		명작의 경제	조원경	
46		보이지 않는 고릴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 대니얼 사이먼스	
47		브라이트 어스: 수천 년간 지구를 빛낸 색의 과학사	필립 볼	
48		삶의 정도	윤석철	
49		융합학문, 어디로 가고 있나?	김광웅(편)	
50		융합형 인재의 조건: 글로벌 인재포럼 리포트 2013	한국경제신문 특별취재팀	
51		이명옥의 크로싱	이명옥	
52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정진홍의 인문경영	정진홍	
53		일상에 꼭 한 번은 들여야 할 명강: 불확실한 시대, 지성에게 길을 묻다	송호근 외	
54	어려운 것 도전 역량	지식의 대응합	이인식	
55		창의융합 콘서트	김종태 외	
56		철학, 역사를 만나다: 세계사에서 포착한 철학의 명장면	안광복	
57		철학, 예술을 읽다	조광제	
58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	김희준	
59		통섭	에드워드 윌슨	
60		통섭의 식탁	최재천	
61	어려운 것 도전 역량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걸	홍세화 외	
62		국경 없는 의사회	데이비드 몰리	
63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열 가지 질문	안철수 · 박경철 외	
6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65		마더 데레사 평전	마리안네 잠머	
66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삶을 걸작으로 만드는 피터 드러커의 대한 질문	이재규(편)	
67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가난으로부터 구할 것인가	피터 싱어	

번호	분류	도 서 명	저 자	읽었어요?
68	윤리 실천 역량	미래세대와 생태윤리	한면희	
69		세계화의 윤리	피터 싱어	
70		실천윤리학[제3판]	피터 싱어	
71		싸우는 저널리스트들: 국경 없는 기자회견의 도전과 모험	로베르 메나르	
72		영화로 읽는 윤리학 이야기	이창후	
73		윤리적 소비: 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	박지희 · 김유진	
74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마일즈 리트비노프 · 존 메달레이	
75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윤리	리처드 스피넬로 · 허만 타바니	
76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77		정의론	존 롤즈	
78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이태석	
79		현대윤리에 관한 15가지 물음	가토 히사다케	
80		NGO의 시대: 지구시민사회를 위하여	조효제(편)	
81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공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실행하는 법	사토 가시와	
82		관찰의 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보다	안 침체이스 · 사이먼 슈타인하트	
83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최인철	
84		넋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탈러 · 캐스 섀스타인	
85		다르게 생각하라	롭 모너헌	
86		디지전 메이킹: 결정의 과정을 명쾌하게 해주는 스무 가지 판단법	이형규	
87		디퍼런트: 넘버원을 넘어 온리원으로	문영미	
88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임현우	
89		생각의 공식: 창의성을 학습하는 11가지 생각의 도구	에드워드 드보노	
90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 마셜 루트벤스타인	
91		실력의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원칙	로버트 치알디니	
92		애플웨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애플의 성공 전략	제프리 크루이상크	
93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94		이매지너: 다음 세대를 지배 하는 자	김영세	
95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박웅현 · 강창래	
96		스무 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티나 실리그	
97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98		창의성의 또 다른 이름 트리즈	김효준	
99		창의성의 즐거움	척센트 미하이	
100		픽사웨이	빌 캐포터글리 · 린 잭슨	

[참고] 상명추천도서 목록

상명추천도서 100선 목록

번호	분류	서명	저자	읽었어요?
1	문학	광장	최인훈	
2		그리스 로마 신화	토머스 불핀치	
3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4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5		무정	이광수	
6		변신	프란츠 카프카	
7		보바리 부인	귀스타브 플로베르	
8		설국	가와바타 아스나리	
9		4대 비극	셰익스피어	
10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11		이방인	알베르 카뮈	
12		정지용 시선집	정지용	
13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표도로 도스토옙스키	
14		토지	박경리	
15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	
16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17		백 년 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8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19		루쉰 소설집	루쉰	
20		열하일기	박지원	
21		체호프 단편선	안톤 체호프	
22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23		태백산맥	조정래	
24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25		데카메론	조반니 보카치오	
26		다시 읽는 백석 시:백석 시선집	현대시비평연구회	
27		황무지	T. S. 엘리엇	
28		고리오 영감	오노레 드 발자크	
29		삼국지연의	나관중	
30		마의 산	토마스 만	
31		임꺽정	홍명희	
32		천변풍경	박태원	
33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	

번호	분류	서명	저자	읽었어요?
34	문학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35		삼대	염상섭	
36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37	사회·역사·철학	사기열전	사마천	
38		백범일지	김구	
39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W. 사이드	
40		논어	공자	
41		맹자	맹자	
42		목민심서	정약용	
43		삼국유사	일연	
44		강의: 나의 동양고전독법	신영복	
45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46		국부론	아담 스미스	
47		손자병법	손자	
48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	
49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50		경제학 콘서트	팀 하포드	
51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52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53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54		역사란 무엇인가	E. H. 카	
55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56		장자	장자	
57		노자	노자	
58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로렌 슬레이터	
59		정신분석 입문	S. 프로이트	
60		대학, 총용	증자, 자사/주회 엮음	
61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	
62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63		법구경	월관	
64		간디 자서전	마하트마 간디	
65		고민하는 힘	강상중	
66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67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번호	분류	서명	저자	읽었어요?
68	사회·역사·철학	제3의 길	앤서니 가든스	
69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70		불안	알랭 드 보통	
71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72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아르놀트 하우스저	
73	문화·예술	서양미술사	E. H. 곰브리치	
74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75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76		간송 전형필	이충렬	
77		디자인 담론: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	김영기	
78		디자인에 집중하라	팀 브라운	
79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세기의 눈	피에르 아슬린	
80		음악의 즐거움	레너드 번스타인	
81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82		해석에 반대한다	수전 섀넌	
83		신화의 힘	조지프 캠벨, 빌 모이어스	
84		20세기 문화 지형도	코디 최	
85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이효인	
86		황금가지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87		부분과 전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88	과학·기술	종의 기원	찰스 다윈	
89		총, 군,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90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91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92		코스모스	칼 세이건	
93		과학, 역사 그리고 과학사	김영식	
94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이상욱 외	
95		과학 콘서트	정재승	
96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르빈 슈뢰딩거	
97		링크	알버트 바라바시	
98		갈기도 하고, 아니 갈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99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	V. S. 라마찬드란	
100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이먼 싱	

[참고] 2019-2 독서모임팀 읽은 책 목록

연번	읽은 책	저자
1	사회복지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이정숙, 조만선
2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3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김세진 외 4인
4	혈하우스에서 20년	제인 애덤스
5	우리는 영원한 학교사회복지사이고 싶다	윤철수 외 4인
6	아몬드	손원평
7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	말바 타한
8	4대 비극	셰익스피어
9	기억전달자	로리스 로우리
10	남도여행 여수 밤바다, 갈대정원 순천에 물들다	지성배
11	자존감 수업	윤홍균
12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조정래
13	빨강머리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14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
15	당신도 언젠가는 빅폴을 만날거야	김해영
16	바보 빅터	레이먼드 조, 호아킴 데 포사다
17	오체 불만족	오토다케 히로타다
18	도가니	공지영
19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20	활기찬 노년 행복한 공동체	김수영 외 5인
21	세계도서관의 기행	유종필
22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23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일까?	김지룡, 갈릴레오 SNC
2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지 않겠습니다	박영숙
25	공부하는 힘	황농문
26	Dubliners	제임스 조이스
27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배봉기
28	말의 품격	이기주
29	모순	양귀자
30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잔다	김은주

31	지구에서 한아뿐	정세랑
32	1시간에 1권 퀴텀 독서법	김병완
33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와 베스트셀러	로버트 단턴
34	정의론	존 롤스
35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36	혁명의 탄생	데이비드 파커
37	눈보라 체이스	히가시노 게이고
38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	신정철
39	역사의 역사	유시민
40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41	잔 다르크	뤽 베송
42	일본을 이끌어 온 12인물	사카이야 다이치
43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44	제2차 세계대전사	존 키건
45	영광의 깃발	에드워드 즈윅
46	철십자 훈장	샘 페킨파
47	알렉산더	올리버 스톤
48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4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50	변신	프란츠 카프카
51	남쪽으로 튀어	오쿠다 히데오
52	왕과 서커스	요네자와 호노부
53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54	나는 오늘부터 경제기사를 읽기로 했다	박유연
55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성유미
56	유튜브 젊은 부자들	김도윤
57	죽음의 에티켓	롤란트 솔츠
58	구운몽	김만중
59	Les Miserables	빅토르 위고
60	데미안	헤르만 헤세

[참고] 2019-2 독서모임팀 읽은 책 목록

61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62	라틴어 수업	한동일
63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64	체르노빌의 봄	엠마누엘 르파주
65	Aladdin	Rubnick, Elizabeth (ADP)
66	알츠하이머의 종말	데일 브레드슨
67	FBI 행동의 심리학	마빈 칼린스, 조 내버로
68	녹색 시민 구보 씨의 하루	존 라이언
69	어쩌다, 비건	김한민
70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71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72	잠깐 애덤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카트리네 마르살
73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사노 아키라
74	일생에 꼭 한 번은 들어야할 명강	송호근 외 7인
75	사회복지사의 희망이야기	노혜련 외 2인
76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하상욱
77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정여울
78	신경 쓰지 않는 연습	나토리 호겐
79	흔들어라,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김창준
80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김지훈
81	찌아찌아 마을의 한글학교	정덕영
82	내가 소홀했던 것들	흔글
83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박경철
84	사랑하는 친구에게	유진 피터슨
85	7번째 내가 죽던 날	로렌 올리버
86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기욤 뮈소
87	연가시	박이정
88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김재인
89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90	코스모스	칼세이건

91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92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93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94	섬	정현종
95	굿 라이프	최인철
96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박찬국
97	빈집	기형도
98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박광수
99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필립 K. 딕
100	아가미	구병모
101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희
102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103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104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105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마셜 B. 로젠버그
106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107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108	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
109	리어왕	리어왕
110	픽사 웨이	빌 कै포더글리, 린 잭슨
111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112	해석에 반대한다	수전 손택
113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11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윤리	한국보안윤리학회
115	달빛조각사	남희성
116	굿바이 몬더	김장환
117	미세유행 2019	안성민
118	땃글부대	장강명
119	언어의 온도	이기주
120	나스타샤	조지수
121	여행의 이유	김영하
122	센트럴파크	기욤 뮈소
123	국경없는 마을	박채란
124	종의기원	정유정
125	허삼관 매혈기	위화
126	자유의 감옥	미하엘 엔데
127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128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레프 톨스토이
129	미움받을 용기	고가 후미타케, 기시미 이치로
130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131	자살가게	장 툴레
132	1984	조지 오웰

2. 온라인 독서모임 활동 방식

1) 읽을 책 및 토의 주제 선정하기

○ 토의 주제: 자유

“토의 주제의 경우 읽을 책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간 독서모임 운영 팀들의 주제를 무작위로 발췌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복가복 2회차: 자신이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책 발표
- 독서X소통 STAND 2회차: 살면서 “너 답지 않게 왜 그래?” 혹은 “너라면 그럴 줄 알았어” 처럼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는 ‘나다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는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를 읽고
- 열정영교 1회차: 첫 만남에서 외모로만 사랑에 빠진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오벤저스 8회차: 인터넷 실명제 도입해야 하는가?
- 응애웅 초키포키 4회차: <말이 칼이 될 때>를 읽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대해 논의
- 육룡이의 독서모임 3회차: 자신이 읽은 책을 토대로 느낀 점과 왜 이 책을 각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는지 토의
- 진심 2회차: 낳은 정인가? 기른 정인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읽고
- 책'S 좋고 6회차: 만약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지 / 나는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가
- 책책 3회차: 미움 받을 용기 등...

2. 온라인 독서모임 활동 방식

2)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온라인 독서모임 진행하기

- 진행 방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화상회의(Zoom) 방식 등
- 진행 시간: 정해진 진행 시간은 없음

“독서모임에 대한 정해진 진행 시간은 없습니다. 대개 한 권의 책을 읽고 팀별로 자유로운 독서모임을 진행해 주고 있으며,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피어 보았을 때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최소 1~2일은 걸린다고 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학기 독서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꽤나 오랜 시간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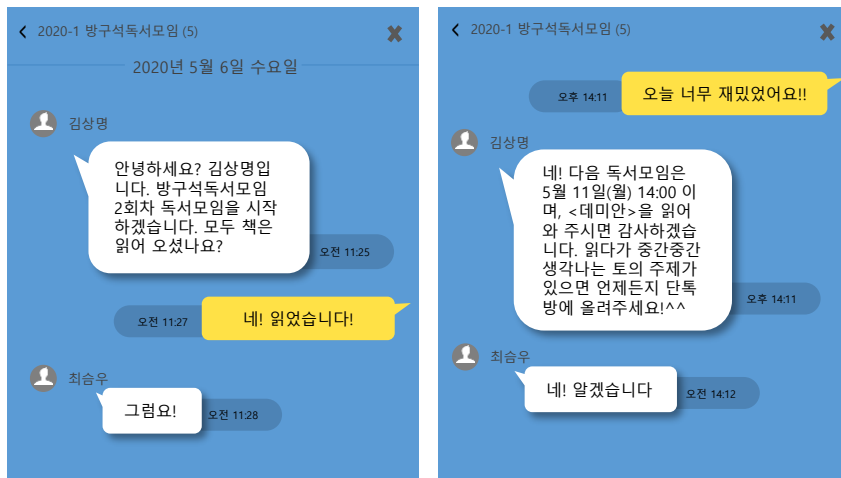
그러나 온라인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말’로 모임을 진행하였다면, 이번에는 ‘글’로 모임을 진행을 하니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온라인 독서모임 활동 방식

3)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양식: 향후 구글 클래스룸에 양식 탑재(예정)
- 보고서 분량: 1장 이상
- 보고서 제출 방식: 팀원 중 한 명이 구글 클래스룸에 보고서 제출

“토의 내용, 향후 계획 등은 자유롭게 서술 가능하며, 활동 사진의 경우 온라인 진행 내용을 캡처하여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 대학혁신지원사업

OOOOO팀 독서모임 활동보고서

팀명	운영회차	
모임일시		
모임장소		
책제목		
토의 내용	인상 깊었던 구절 / 토의 내용 및 주제 등 자유롭게 서술	
팀원별 활동 소감	팀원명	활동 소감
향후 계획		
활동 사진	온라인 모임 진행 내용 캡처 후 삽입 (진행 첫 화면, 마지막 화면 캡처 포함)	

3. 활동보고서 예시(1)

2019-1 대학생신자유사업

곰곰's팀 독서모임 활동보고서

팀 명	곰곰's	운영일자	3주차
운영일시	2019년 5월 27일 15:00~17:00		
모임장소	그린카페		
해 제 목	심대		
회의 내용	1) 가장 이입되는 인물(혹은 가장 인상 깊은 인물) 대중: 조의관 할: 병화랑 왜 노나, 그런 애랑 노는 거 아니다, 외관의 인물관을 보면 집안에 돈을 잘 벌어서주고 명성 세워주고, 지금 시대랑 비교해보면 거부감적인 사고의 불편함. 거정에 돈을 벌어서주고 내가 할 일은 끝났,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지금 시대와 많이 달라짐을 느낌 재민: 병화, 아버지의 강요를 반대하고 본인의 뜻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음, 학비 지원 없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굉장히 힘든 삶을 지내는 병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도하려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음, 또한, 이러한 인물들 통해 작가는 주변 상황의 압박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됨. 예진: 인상적인 인물: 상훈, 욱기 이입되는 인물: 욱기 이유: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속에서 상훈과 욱기가 정면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함, 상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워낙 친절하고 이미지, 풍성 중용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아버지에 대항하는 적국적 인물이 상훈이라고 생각함, 상훈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함, 경매와 병화가 겹쳐질 때 상훈도 말에 같이 있음, 상훈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눈치 볼, 이러한 것을 보며 앞서 언급한 사회 속 선행들도 위선적인 행동으로 판단을 했음, 욕기의 경우 상훈과는 반대로, 조의관이 욱기에게 제사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여하기 때문에 이러한도 도망가려고 하지만 막상 제사 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름, 이러한 모습이 시대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음, 때문에 욱기에게 이미지가 가장 잘 되었는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통한이 많이 되었음, 일제강점기에 저항해야한다는 의식은 있는데 막상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욱기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음, 저항하기도 무섭고 가만히 있거나 조금 그런 생각에 욱기와 비슷한 상상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함, >대중: 누구나 그 상황에 감정이입해서 해본을 법한 생각인 것 같음. 재중: 욱기와 병화, 욱기가 잘 휘둘러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해하려고 시도를 해서 두루뭉술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병화가 왜 인상적이었나면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욱기와 친구생활을 하며 놀리고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음, 힘든 상황에도 쾌활함과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게 인상 깊었음, 대부분은 힘들면 그게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병화는 매사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2) 자유로운 감상문	
	대중: 출근했을 신여성으로 볼 나 같았으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거 같은데, 그녀가 삶을 극복하려는 자에 감명을 받음, 웃었다. >예진: 나도 공감했던 게 조금 것부분을 수도 있던 현대, 재중이거 말했던 것처럼 경매가 경제학, 시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편인 책임질 지려함, 이 부분에서 신여성의 모습을 특히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예진: 완전히 내용을 읽은 게 아니긴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행동 양상이 다양한 것이 신기했음, 시대에 저항적인 인물과 순응하는 인물이 동시에 존재, 이러한 등장인물의 태도들이 논쟁, 토론거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음, 특히 책이 책자로 바뀌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장면 전환처럼 길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소재에 있어서 서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설의 결말을 예측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음. >재중: 어쨌든 소설읽기의 장식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음, 결말이 궁금하고 예측하게 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자세인 것 같음. 재민: 저편에도 언급했듯이 표현에 보다 주목해서 읽었던 것 같음, 내가 문학적으로 글을 쓰려는 노력에 하다보면 어딘가 오그라들고 민망함, 대화, 서술을 어딘가 담백하면서 여운 있게 적어가는 작가의 문체는 회화에 약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 깊었음, 또한, 소설을 읽으면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나가는 나를 인지하며 작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며 글을 썼을 것인지, 작가에게 상상하는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음, 한편, 등장인물도 다양할뿐더러 여러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대중: 일제강점기 1930년대, 소설은 (외재적 관점에서) 작가가 쓸 때 그 시대 배경에 어필 수 없이 이입할 수밖에 없음,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변명이 잘 되었다고 느낀게, 상대가 재산으로 싸우는 내용인데 가족 안에서도 파면화되고 분열하는데, 문학중치,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 이러한 배경이 가장도 파괴, 파괴가 국가적, 가정적인 면에서 통치에 일어나다는 점이 슬펐음.	
일임명 활동 소감	일임명	활동 소감
	유대중	세로는 책 상대를 읽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세로로 옮겨왔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기대가 된다, 또한, 평소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책을 통해 또다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된다.
	양예진	인물 한 명의 행동을 원형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 내용을 읽다 이야기 간격을 한 번 더 하는 느낌을 받았다,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토론편 해본다든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전제현	옛 시대의 언어(문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표현을 읽으며 공감하는 게 좋았다, 나까지 글을 맛있게 느끼고 싶은 그런 공통 이 드는 책이었다, 활동 전 일상나눔을 통해 항상 조원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게 좋았고, 오늘 역시 여러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임재중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이었던 상대를 전원으로 읽는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기대가 된다, 또한 아직 초반부와 인물 관계를 정리하는데 조금했는데, 앞으로 읽어날 사건과 배경에 주목하여 책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원형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너무 좋았다.
향후 계획	매 주 월요일에 모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문요시에 다른 날에도 만날 예정이 다, 이번에는 상대의 초반부를 읽으며 내용을 가지고, 다음주와 그 다음주, 2주에 걸쳐 상대를 모두 읽을 예정이다.	
기타 (보요한 것, 요청 사항 등)	매우 만족합니다. ^^	활동 사진

3. 활동보고서 예시(2)

2019-2 대학혁신지원사업

열정영교팀 독서모임 활동보고서

타	영	영장영고	영영화자	5월차
운영일시	2019년 10월 29일			
모형상소	영어교육과 과방			
책 제목	Les Misérables - Victor-Marie Hugo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대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대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대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대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대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영국 문학의 대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다.			
도의 내용	줄거리 정발장은 유죄를 조사를 위해 밤 한 달이 출신 죄로 15년 감옥 안에 있다. 그가 첫 번째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신분증에는 위험인물이라 표기해 있다. 정발장은 그것을 받아보고, 마흔한 이라는 이름의 사장으로 새 마늘에 숨는다. 그는 사장이 되어 공장을 세우고, 착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베르 경장은 신분증 속이고 가짜 신분으로 사장을 하고 있는 그의 뒤를 쫓는다. 한편, 정발장은 공장에서 만났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얼마 뒤, 그녀는 죽게 되지만, 정발장은 그녀의 아이인 코제트를 찾아 나선다. 그 무렵, 정발장은 자베르에게 쫓기고, 그 와중에 코제트를 만난 정발장은 그 아이를 알고 있는 나쁜 여인 주인 부부에게서 코제트를 데려온다. 어느새 코제트는 크게 되고, 코제트는 혁명가의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정발장은 마리우스가 있는 마을을 자베르 경장이 있는 마을로 알고 떠나려 한다. 한편 마리우스는 혁명을 할 것인지, 사랑을 좇을 것인지 갈등하다가 혁명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사랑에 빠진 나쁜 여인 주인 부부의 딸 에포닌이 마리우스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혁명은 실패하게 되는데, 정발장은 혁명가에서 죽은 후한 자베르를 살려주게 되고, 정발장에 의해 살아난 것에 대해 자베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끝내 해를 죽인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정발장은 혁명을 하려고 다친 마리우스를 데리고 간다.			

	마리우스의 활아버지 장으로 간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떠나자 한다. 이후, 코페토와 마리우스는 결혼식을 하는데, 나쁜 여관집부인과 병장을 하고 돌아와 돌아간다. 그러는 새에 장발장은 수도원 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연상결론 글 금지문 - "Even the darkest night will end and the sun will rise." (여무) 여부는 밤일지라도 언젠가는 지나고 태양이 뜰 것이다.) 이유: 아무런 말도 아무런 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태양의 해가 뜬다. 이는 아무런 지라도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고, 상황이 언젠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구절이 나에게 주는 이유는, 결혼예정일고시지를 앞두고 있는 나, 내년부터 한나라고 결혼을 시일을 보낼 것 같은 부서를 맡게될 나처럼 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만나 다가를 그 시간들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해를 때 그 아름다움에 아름다움, 결국엔 좋은 것이다. 결국엔 아름다운 것이다. 나에게는 구절이 고시 생활에 힘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금대어 - "To all appearance, this is a great crime which all the world commits. There are hypocrites which have taken flight, and are in haste to make protest and to put themselves under shelter." (뜻: 보기에 모든 죄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누구나 죄를 짓고 있다. 위선이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변명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유: 인간은 모든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늘 반대로 위선이라는 항의를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 이를 거꾸로 다른 사람이요고만 생각했었다. 아주 평범한 죄라도 짓지 않으면 좋을지? 하고 생각을 생각해 하게 되는 구절이었다. 정한미 - "Laughter is sunshine, it chases winter from the human face." (웃음은 인간의 얼굴에서 겨울(어두움)을 쫓아내는 햇살과 같다.) 이유: 최근에는 생각보다 웃을 일이 없어졌던 것 같다. 코웃음이 생각할 일도 없고 남을 앞에서 함부로 웃으면 쉬이 보인다는 생각이 더 컸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고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지 못한다. 나도 생각할 일이 많더라도 한순간의 웃음 덕분에 더 힘이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서 겨울, 즉 어두움을 쫓아내는 햇살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각에 따라서 무엇이든 긍정적인 것은 더 보다는 그 웃음 줄거와 생각과 함께 햇살을 느끼는 것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웃는 것이 마냥 쉬워보이지 않았다. 웃을 것을 해야 할 것 같아 무뎠던 생각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구절을 통해 웃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록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 나의 건강하고 햇살 같은 긍정적인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무뎠던 생각이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앞으로는 내 스스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되어서 표정으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임영범 윤영환 황중 소관
--	---	------------------------------------

활동 소감	김지현	레미제라블이 한창 뮤지컬과 영화로 흥행했을 때에도 접해보지 않았던 내외지인, 미국이 작품들 간헐론 통기론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장면들의 큰 울림과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김혜리	흔히 장편소설은 읽고 있는 레미제라블을 써서 온 한 번 더 읽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지었지만 그 후에 많은 사들을 도와주었으니 장편은 사랑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사랑들을 들 것 조차 시기를 통해 도왔던 것을 생각하여 과연 이게 좋은 것일 지 고민하게 되었다.
	정한비	레미제라블은 내게 삶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한창 장편이 되었다. 그래서 막연히 연애가 어떤 필적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읽게 되어서 매우 보람찼다. 그와 또 영화에서는 느낄 수 있는 그 문학적인 문화가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다. 원래 나는 책을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 게 해서, 시각적인 자료로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필적을 읽는 계기로 읽게 된 경험을 하니 앞으로는 문학으로도 작품을 접하게 되 더 좋아하는 계기가 될 듯 하다.
	황후 개혁	레미제라블을 읽고 와서 '성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용서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기대
(보유한 것,
요청 사항 등)

활동 사진



감사합니다!

문의 02-2287-7192, kimyj9016@smu.ac.kr



계당교양교육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